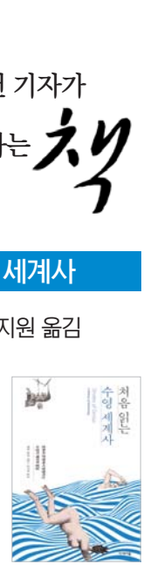
수영이 생존기술로 요구되는 곳에서 인류문명 발달했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처음 읽는 수영 세계사

에릭 샬린 지음, 김지원 옮김



인류와 수영의 관계 문화와 문명사적 관점서 조명

해상제국 등장으로 수영은 군인과 선원에게 필수 기술

새로운 스쿠버기술은 20세기 이르러 시작

바야흐로 휴가철이다. 많은 이들이 산과 들 그리고 해외로 피서를 떠난다. 그래도 휴가지로 바다만한 곳이 없다. 푸른 파도와 시퍼런 수평선을 보노라면 더위는 저만치 밀려난다.

물은 인간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 물, 공기, 흙, 불 네 가지 원소 가운데 물은 인간을 부드럽게 포용하고 끌어들인다. 인간은 허공을 날 수 없고 맨몸으로 흙속으로 파고들 수도 없다. 더욱이 불속에 사는 전설의 동물 샐러맨더처럼 불을 뚫고 지나갈 수도 없다.

그러나 물은 어떤가. 푸른 액체는 기꺼이 우리를 받아들인다. 갓 태어난 아기는 물에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팔다리를 휘젓는 동작을 한다. 우리 모두는 모체의 자궁에서 '헤엄치는' 태아였다. 물이 생명의 근원을 넘어 생명 유지의 근간인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수영을 하는 걸까?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에서 수영을 이렇게 말한다. '자아가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없는 정신적인 일부분인 감정과 무의식, 성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사실 수영은 팔을 젓는 힘을 적용해 물을 이동시키는 역학 이상의 행동이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행복이라는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인류와 수영의 관계를 문화와 문명사적 관점에서 조명한 책이 나왔다.

현역 수영 코치이자 연구자인 에릭 샬린의 '처음 읽는 수영 세계사'는 찰랑거리는 물살처럼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인다. 알라딘이 '이달의 역사책'으로 선정한 데서 보듯 책은 '헤엄치는 모험'을 다각도로 들여다본다.

그렇다면 도시문명과 수영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인류의 문명은 강을 끼고 융성했는데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유역, 중국 황하 같은 지역은 수영이 생존기술로 요구되는 곳이었다.

문명이 점차 발달하면서는 식량 외에 사치품이 거래됐다. 진주, 조개껍질, 산호 등 장신구로 가공되는 물품을 획득하기 위해 직업으로서의 수영이 등장했다.

로마 같은 해상제국의 등장으로 수영은 군인과 선원에게 필수 기술이 됐다. 취미로나 군사적으로나 수영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하기에 이른다. 이후 넓은 세계를 탐험하는 대항해 시대에 이르면서 새로운 물의 세계를 접하게 된다.

산업혁명을 거치며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구를 탐험한다.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거시적, 미시적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수중 세계는 여전히 미지의 분야였다. 그러다 18세기 공기호스로 수면과 연결된 잠수복이 발견되면서 얕은 해저를 걷게 된다. 이 기술은 19세기에 이르러 완성이 됐지만 물리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수영은 19세기 전반에 걸쳐 노동계층 소년과 남자에게 인기 있는 활동이었다. 그들은 미국 도시 대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호수와 강, 만에서 수영을 하고 빅토리아 시대 규범에 어긋나는 서민적이고 남성적인 수영 문화를 만들었다. 그들은 알몸으로 수영을 하고, 욕을 하고, 싸우고, 관리들을 피했다."

저자는 20세기에 이르러 새로운 스쿠버 기술을 시험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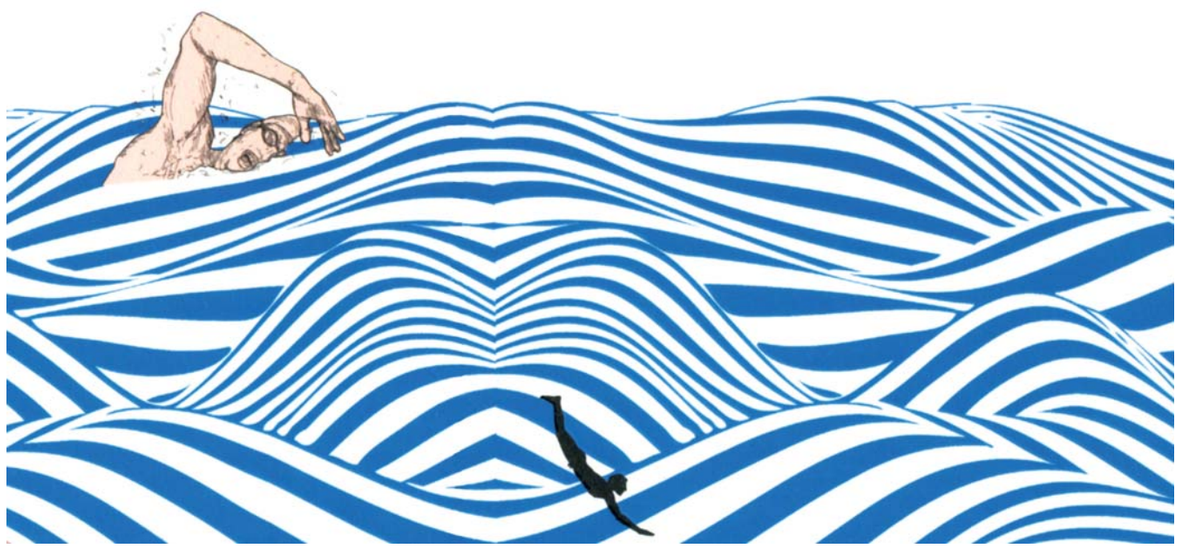
1942년 아쿠아렁(잠수용 수중호흡기) 개발로 잠수부의 폭넓은 활동이 가능해졌다. '해저의 포로 상태'를 벗어난 인간이 물의 세계를 탐험하면서 취미 수영과 스포츠 수영이 폭발적으로 발전한다.

지구에서 38만km 떨어진 달에는 여섯 번의 유인 우주선이 착륙하고 열두 명의 우주행사들이 달을 밟았다. 그러나 겨우 지하 10km밖에 되지 않는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곳에 간 사람은 네 명에 그친다.

저자는 호모 아쿠아티쿠스를 그려본다. 심해의 바다에서 수영이 인간의 이동 방식인 걷기를 대체하리라는 것을.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아무도 손대지 않은 광범위한 식량과 천연자원의 보고인 바다로 뒤덮여 있는 지구 표면의 71%를 개척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케이북·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박형서 지음 '낭만주의'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김유정작가상을 수상한 박형서 작가가 다섯 번째 소설집 '낭만주의'를 출간했다.

지금까지 작가는 소설쓰기에 한계가 설정되는 것에 대해 거부하면서 꾸준히 실험을 해왔다. 그를 가리켜 '소설 실험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이번 작품집에는 '개기일식', '권태', '시간의 입장에서' 등 모두 6편의 중단편이 수록돼 있는데, 작가는 소설보다 정교한 설정으로 삶의 이면을 들여다본다.

지난 2014년 여름부터 2017년 봄 사이에 발표한 소설로, 기존의 자신의 스타일을 또한번 갱신한 작품들이다.

그는 작가의 말에서 "두 세기 전에 유행했던 한편으론 촌스럽고 또 한편으론 신비로운 저 요란한 허세 속에 서사의 항구적 진실, 다시 말해 우리 길 잃은 작가들의 여원한 주제가 담겨 있지 않았던가"라고 언급한다.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소설의 서술에 개입하면서 서사의 고민을 풀어내는 '개기일식'은 작가 자신이 새 스타일을 확립하기까지 거쳐온 시간을 형상화한다.

하지만 박형서 소설의 묘미는 상식을 초월하는 사건들에 현실성을 가미하는 설득력에 있다. '권태'에서 작가는 미국에서 발생한 불길의 진행 경로를 치밀하게 설정한다. 그러면서 불길이 캐나다까지는 번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펼쳐낸다.

작가는 형식에 얽매이지는 않지만 서사에 개연성을 부여해 실제 삶에서 구현이 가능할 정도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현실보다 정교하지만 활달한 상상력은 그의 소설이 지닌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동네·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수명 지음 '물류창고'

1994년 '작가세계'로 등단한 이후 7권의 시집과 다수의 시론집, 평론집을 발간한 이수명 시인이 신작 시집 '물류창고'를 펴냈다.

그동안 시인은 대상을 중심으로 세계를 읽어내는 언어의 발견을 시작으로 현대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작품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물류창고'라는 제목으로 모두 열 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는 점이다.

시인은 특별한 구분 없이 예고 없이 등장하는 '물류창고'를 통해 주체와 대상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어려운 행위들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공간으로서의 물류창고는 이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현대의 몰개성화, 익명성, 복제화 등의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열 편의 제목만으로 구별할 수 없게끔 일련번호를 붙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작시가 아니고 그저 '물류창고'라는 시로서 흩어져 있는 별개의 작품들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렇다면 왜 물류창고일까? 이 공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일반적인 물류창고는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상품을 입고하고 출고할 때 열린다. 이곳에는 운반되는 물품이 있으며 이를 매개하는 주체 그리고 운반과 보관 등의 행위가 있다. 어디에나 있는 물류창고이지만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구별하기 어렵다.

조재룡 문학평론가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과 같이 느껴지는, 무한 반복의 공간, 지루한 반복 속에서 무능과 불능을 독특하고 특수한 언어 안에서, 언어에 의해,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시는 어디론가 이행하며, 새로운 문을 연다"며 고 평한다.

〈문학과지성사·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추와이훙 지음, 이민경 옮김 '어머니의 나라'

절경으로 이름난 중국 윈난성의 루구호에 사는 모쒀족은 우리나라에 문화관광의 대상으로 먼저 알려졌고, 그동안 TV 교양 프로그램이나 여행잡지 등에서 종종 다루어졌지만 가모장제 모계사회의 전통이라는 문화인류학적 의의는 대중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다.

'어머니의 나라'는 최첨단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변호사로 일하던 저자 추 와이훙이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중국 오지의 모쒀족과 가족이 되어 6년 넘게 거주하면서 모쒀족의 세계를 철저히 탐색하고 체험한 페미니스트의 여정을 그렸다.

이 책은 실재하는 가모장 사회에 대한 치밀한 기록이며 동시에 여성이 중심이 된 사회는 남성에게도 합당한 자리를 내어주는 평등한 사회임을 보여준다.

모쒀족 사회는 여성이 남성을 억압하는 사회가 아니다. 할머니의 남자 형제와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만큼 존중받는다. 남성은 경제력으로 평가받지 않고, 혼자 부양의 책임을 떠맡지 않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눈다. 모쒀족 사회에서는 연장자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지만, 나이가 적은 아이들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한다.

모쒀족 사회는 관광지로 변모하고 중국 주류 사회에 흡수당하며 점차 전통문화를 잃어가고 있지만, 현대사회보다 더 자유롭고 평등한 이 '오래된 미래'는 연애, 결혼, 가족, 가정과 일의 양립, 자녀양육 등 삶의 모든 방면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준다.

〈흐름출판·1만38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